



한국도서관상을 수상하고

엄갑도(전 충청북도중앙도서관 관장)

한국도서관협회 정기총회 및 도서관 정보화 종합 계획 설명회가 2000년 3월 31일 서울에 있는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있었다. 문화관광부 박지원 장관도 임석한 자리였기에 우리 도서관인으로서는 매우 영광된 자리였다. 그 자리서 우리 충청북도 중앙도서관이 2000년도 한국도서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급년 6월말이 되면 나는 정년을 앞두고 공로 연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공직 생활이 끝나게 되어있다. 이런 시점에서 이렇게 한국도서관상을 수상하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되었다.

이제 공직 생활 마감을 눈앞에 두고 우리 도서관이 한국도서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자축하면서 내가 재직하고 있었던 동안 이루어진 사업들을 간략히나마 되돌아보고자 한다.

내가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장으로 근무하다 충청북도 중앙도서관장으로 발령을 받은 것이 1996년 8월 1일 이니까 벌써 3년 8개월을 근무한 셈이다. 이곳으로 발령을 받으면서 나는 이곳을 공직 생활의 마지막 근무처로 생각했기 때문에 마지막 정열을 불태워 보리라고 굳게 결심하고 그 동안 내 나름대로 참으로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나의 일에 대한 욕심과 정열에

대하여 흔쾌하게 호흡을 같이해준 과장님들과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나는 37년간의 공직 생활 중 대부분의 세월을 교육행정직으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도서관 근무는 생소한 업무였다. 그러나 도서관으로 발령을 받고 곧바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4개월에 걸친 사서교육을 받았다.

그 해 12월에 2급 정사서 자격증을 획득하고서 비로소 도서관 운영에 관한 내 나름대로의 소신이 쏘고 어떻게 도서관을 운영해야할지 도서관 운영을 위한 그림이 내 머리 속에서 자리 잡혔다.

정부는 곧 닥쳐올 21 세기를 '문화의 세기, 로 규정하고 지식정보화, 글로벌화, 개방화, 시민 사회의 성숙 등 새로운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문화정책을 계획하고 있었고, 이러한 문화의 세기에 공공도서관은 주민들의 문화의식과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식 정보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삶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필수적인 문화기반시설이라고 생각되었다.

일찍이 버틀러(P.S.Bertler)는 '도서관이란 모든 자의 알 권리를 충족케 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 라고 했고, 랑가나단(S.R.Ranganathan)

은 '성장하는 유기체'라고 말했다. 결국 공공도서관은 「만민의 대학」으로서의 기능을 보유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우리 도서관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1997년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하면서 국제화 세계화에 대처할 지식 정보의 제공 및 지역 문화 발전과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는 도서관 운영을 그 목표로 정하고, 첫째 지식 정보 제공의 강화, 둘째 독서 인구저변 확대를 위한 독서운동 전개, 셋째 지역 문화 발전과 평생교육, 넷째 양질의 자료 확충과 시설환경 개선으로 정했다.

이 운영목표와 운영시책은 변함없이 시행해왔고 해마다 이러한 시책구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 내용들을 수립하여 실행해 왔다.

그 내용들을 간략히 요약해 보면,

첫째, 지식 정보 제공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자료실, 아동 주부 열람실, 참고 정기간행물실, 어학실, 향토자료실, 특수자료실 등의 자료열람실과 자유열람실 이용을 이용자 중심으로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식정보 서비스에 힘쓰고,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청주 시내 35개 지역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버스 2대에 각 4,500권씩의 도서를 소장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미평고등학교 등 6개 기관에 순회문고를 설치함으로써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리고 도서관 전산화를 기하여 보다 신속한 지식·정보 제공에 노력했다. 현재 하드웨어와 도서관리 프로그램(소프트웨어)으로 주전산기기(Ticom II) 1식, 단말용 PC 22대(자료열람실 PC 9대, 온라인 자료검색실 8대, 도서정리용 PC 5대) 프린터 10대,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1대, 모뎀 20조, 응용프로그램, 도서관

리 Total system인 Unix KOLAS로 DB구축을 완료하여 이용자 검색기를 통하여 원하는 도서 정보를 쉽게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했고, CHAINS망을 이용하여 자료검색, 도서관 이용안내 등을 집에서 PC 통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빈약하지만 CD-TITLE과 CO-LAN 인터넷이 마련된 멀티미디어 랩(LAB)실도 운영하고 있다. 또 금년에는 문화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문화인프라 종합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각종 문화 정보를 직접 받을 수 있게되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계획하는 표준관리 시스템(KOLIS)구축에도 노력하여 전국도서관 도서 검색을 가능케 하여 전자도서관 기반 구축에도 한 걸음 다가서게 될 것이다.

둘째,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독서운동을 계속적으로 전개했다. 지식·정보문화 시대에 발맞춰 국민들의 독서문화에 대한 관심고취와 국민 독서율의 제고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독서 생활화를 위하여 동·하계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청주시내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도서관 이용법, 올바른 독서방법 등을 지도하는 독서교실을 운영했고, 4월 도서관 주간에는 독후감 공모시상, 다독자상, 동화구연, 문학강좌들을 개최하고 책과 함께 하는 우리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창의성을 신장시키는 독서지도를 했다.

또 월 2회 모임을 갖는 주부독서회, 매주 토요일 실시하는 어린이독서회 등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독서인구를 확대하고, 매년 문집으로 「상당의 글 향기」를 발간했으며 매달 분야별로 40권씩의 권장도서 목록을 선정하여 도서관 이용자와 지역 주민에게 배포하여 전 국민 책읽기 운동으로 독서 생활화의 기반을 다지는데 노력해 왔다.

셋째, 지역문화발전과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서는 지역중심 평생학습관 운영으로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의 기반을 구축하여 개인의 자아실현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모든 이를 위한 교육기회 개방에 힘써왔다.

이의 실현을 위해 취미교실로 서예, 묵화, 도자기공예, 염색공예, 스텐실공예, 켈트공예 교실 등을 운영했고, 교양강좌로 청소년 교양강좌, 자녀 독서 지도 강좌, 문학강조, 건강강좌 등을 운영했으며 문화학교로 사진강조, 비디오강좌, 수지침강좌 등을 운영했다.

한편으로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안내 책자, 평생교육 운영사례집, 평생교육소식지,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사 현황 등을 발간하여 충청북도 내 사회교육기관과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해 왔다.

그리고 종합 취미교실 전시회, 족보전시회, 향토작가 작품전시회, 한국의 옛 인쇄문화전시회, 우수도서전시회 등을 개최하고 매주 토요일 우수영화 상영 등으로 지역문화발전에 노력해왔다.

넷째, 양질의 자료확충과 시설환경 개선을 위하여서는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도서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양질의 도서확보에 노력했고, 도서 기증운동도 신문칼럼, 방송사 인터뷰 등을 통하여 즐기차게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3만여권의 도서를 기증 받았다. 그 중에서 김진영, 이은애, 곽한봉, 임현성 씨 등은 많은 도서를 기증하여 주셔서 개인문고 설치까지 했다.

또 향토자료실을 설치하여 충청북도 내 모든 문학단체들이 발간한 동인지를 창간호부터 수집하고 향토작가 작품들을 한곳에 수집 정리하였으며 각 시 군에서 발행된 시군지, 통계연보 등 행정자료들을 한곳에 수집 정리하였고, 각 성씨의 족보도 수집 정리하였다.

그리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에도 꾸준히 노력해 왔다.

지금까지 내가 재직하는 동안 시행한 사업들을 생각나는 대로 대충 더듬어 보았다. 이러한 사업들은 어느 도서관에서든지 다하는 일들이지만 우리 도서관은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준 결과였으며 이러한 일들이 인정을 받아 2000년도 한국도서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도서관계를 떠나면서 다시 한번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이제 즐거웠던 일, 보람을 느꼈던 일, 괴로웠던 일, 아쉬웠던 일 등 모두를 하나의 추억으로 남기면서 훌기분하게 떠나 갈 뿐이다. 마지막으로 바람이 있다면 후배들이 더욱 분발하여 문화의 세기를 맞아 우리 도서관은 마르지 않는 지식·정보의 샘터, 진리탐구의 나래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즐거운 배움터, 첨단 정보사회를 헤쳐 나아갈 미래의 주역을 키워내는 평생사회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 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더욱 발전시켜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할 뿐이다.